한복 입고 학교 가자

2022

한복 교복 보급 참여 학교 모집



공고기간	2022년 4월 21일 (목) ~ 2022년 6월 30일 (목)
접수기간	**2022년 6월 7일 (화) ~ 2022년 6월 30일 (목) 17:00 까지 선착순 모집**
공모대상	교육부 인가 국내 중·고등학교
선정규모	12개교 내외
지원내용	1. 한복교복 도입을 위한 교복선정위원회 교복설명회(1회) 2. 학교별 교복 디자인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접수방법	[필수 1] 학교장 명의의 전자공문 제출 [필수 2] 제출 공문 본문과 신청 관련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 이메일 hanbok-uniform@kcdf.kr
문 의 처	한복산업팀 한복교복 참여학교 모집 사무국 02-398-1632 hanbok-uniform@kcdf.kr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내 공고문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06 vol.479
2022 JUNE

행복한 교육

02 장상윤 교육부 차관 취임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위해 창의적 교육의 미래 인재 키워나가겠습니다"

08 네 꿈을 펼쳐라
경남 통영 동원중학교 색소폰 오케스트라 '더샵(the #)' 음악 안에서 일상 반올림 (#)

40 교육웹툰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50 진로직업인
환경 컨설턴트_라남용 ㈜라나에코컨설턴트 소장 생태계 관찰·기록·평가하는 전문가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06

vol.479 2022 JUNE

COVER STORY

통영 동원중학교(교장 배문숙)는 알토,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으로 나뉘는 색소폰 파트와 드럼, 심벌즈, 실로폰, 큰북 등 타악기 파트로 구성된 특수편성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중에서도 학생들은 음색이 독특한 색소폰 연주를 좋아한다. 학생들이 색소폰을 함께 연주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처 교육부
편집인 대변인 최성부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조재익
사무관 이인숙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 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08


50

특별기획

신냉전 위기에서 평화교육 톺아보기

18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원인'과 교훈:
평화의 역동성을 키우자

22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를 배워볼까?

25
혐오를 극복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아이들

28
뉴노멀 시대,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본 평화교육의 역할


56

02 **장상윤 교육부 차관 취임**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04 **꿈이 영그는 현장**
파주 마지초등학교
체험중심 통일교육으로 공감·존중·평화 감수성 모두 키운다!

08 **네 꿈을 펼쳐라**
경남 통영 동원중학교 색소폰 오케스트라 '더샵(the #)'
음악 안에서 일상 반올림 (#)

12 **에듀피플**
유해근 재한몽골학교 이사장
한국과 몽골을 잇는 세계 리더를 키우다!

32 **정책을 말하다①**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창의적 교육의 미래 인재 육성

36 **정책을 말하다②**
초·중·고생 교육회복에 대학생 튜터가 나섰다!

40 **교육웹툰**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42 **교육자치시대**
학교 숲·텃밭…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45 **이달의 교육뉴스**
2022 학교예술교육 캠페인 '예술온교실' 실시 外

46 **교육포커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

50 **진로직업인**
환경 컨설턴트_라남용 ㈜라나에코컨설턴트 소장
생태계 관찰·기록·평가하는 전문가

54 **체험! 진로현장**
필必환경 시대, '그린 스쿨'을 찾아서

56 **일상의 쉼표**
허균·허난설헌 남매의 고향 강릉 초당마을

60 **혼자보기 아까워서**

62 **명예기자 리포트**
"섬세하면서도 최선의 수업 만드는 교사 되고파"

64 **독자마당**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직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공백 없이 이끌어 가고자하는 의지와 각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부 차관으로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국민께서 바라는 교육혁신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미래사회 도약을 위한 교육 혁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결손 문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을 쏟아 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희망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국가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다시 한 번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신기술 기반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최우선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의 급감, 지역 소멸과 맞물려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성장하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저변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학령기의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더 넓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 체제 전반을 재정비하고 체계화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교육부 차관 장 상 윤

파주 마지초등학교

체험중심 통일교육으로 공감·존중·평화 감수성 모두 키운다!



1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마지초등학교(교장 곽규종)는 2001년부터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전개해왔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 연계교육,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경기도 공감학교통일교육사업 등이 있다. 모두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 남북출입사무소와 도라전망대, 비무장지대(DMZ)와 25사단승전전망대, 제3땅굴과 임진각평화누리공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5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글 _ 편집실



2



3

1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으로 공감, 존중,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아이들
2 마지초 5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3 마지초 학생들이 낱말카드를 이용해 북한말을 배우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마음에 쏙쏙!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마지초 5학년 교실, 큼지막한 현수막이 칠판에 걸려있고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 알아요? 70년이 넘도록 아무도 넘지 못했던 높은 담장. 그건 바로 판문점에 있는 경계석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정상이 함께 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변준희 강사가 TV화면에 영상을 틀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영상에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남북정상이 악수하는 장면과 이후 손을 맞잡고 10㎝ 높이의 경계석을 함께 넘는 모습이 담겨있다. 준비된 영상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강사에게 묻는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그런데요... 통일은 언제 돼요? 저도 저 담장을 넘어보고 싶어요." 질문하는 학생의 목소리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진다.

"통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민통선이 사라지는 정치적 통일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판문점에 있는 콘크리트 경계석을 넘어서 오고갈 수 있는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2018년에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머지않은 때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통일은 나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변 강사의 말에 슬퍼 보이기만 했던 여학생의 얼굴도 희망을 품은 듯 한층 밝아진다.

5학년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 파주시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이다. 파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북한을 바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원래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은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해온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 프로그램도

파주시 관내 대다수의 초등학교가 신청할 만큼 인기 많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새터민 출신의 전문 강사가 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오늘은 12년간 학교와 기관 등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해온 변 강사가 수업을 이끌었다. 남북낱말카드, 남북한 문화비교, 통일 토의토론, 통일 보드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평화통일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또 변 강사가 직접 제작한 '한반도 퍼즐'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남북한 도별 이름과 위치,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태도·능력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 세대는 통일의 주역!
눈높이 맞춘 통일교육 강화해야…

마지초는 2001년부터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 운영을 맡아왔다. 덕분에 관리교의 이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


4

내 프로그램을 교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학교 천성우 교사가 직접 기획·개발한 프로그램들이에요. 현재의 북한을 알아보는 북한이해교육부터 북한 동요를 배워보는 체험, 통일 보드게임, 북한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도 이뤄지는 것 같아서 교육 효과를 실감하고 있어요."
곽규종 교장은 미래 세대가 통일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터민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민족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살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평화·통일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맞닿아 있거든요."
실제로 5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란 학생은 수업을 통해 북한과 평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평소 북한이라고 하면 나쁜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내용 중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었다."라고 다짐하는가 하면 김보겸 학생 역시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라며 제법 의젓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5



6

4 평화·통일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맞닿아 있다.
5·6 학생들은 경기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등 한반도 퍼즐을 맞추며 도별 위치를 확인해보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 태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은 운영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0여 개교, 연평균 8천~1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녀갈 만큼 경기도에서 평화통일 관련 단일 체험학습처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찾는 기관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이 체험처는 2021년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없어진 자리에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예산 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전시하는 한편, 수혜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평화통일 강사양성과 교원연수를 위한 공간까지 확보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센터 준공은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어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초는 올해 여름, 학교 안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는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에 전시됐던 북한사진, 북한물품, 영상자료 등을 옮겨와 꾸밀 예정이다.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천성우 교사는 "학교 안에 체험학습장이 만들어지면 마지초 학생들은 물론이고 인근 학교 학생들도 찾아와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정적 예산확보와 인력관리시스템 구축돼야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실'과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외에도 마지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감학교통일교육사업'에도 지원해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공감학교통일교육사업'에는 2019년부터 참여해왔고 '공감 평화·통일 인문학기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통일을 맞이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는 학교. 하지만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수업의 효과를 실감하기 때문에 통일교육 관련 사업에 매년 신청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학교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요. 통일교육은 지속성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한 학교 안에서 어떤 학년은 통일교육을 받고 또 어떤 학년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천 교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학교단위가 아닌 교육청과 공공기관 차원에서 새터민 출신 전문강사에 대한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보다 수준 높은 통일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남 통영 동원중학교
색소폰 오케스트라
'더샵(the #)'

음악 안에서 일상 반올림 (#)







동원중학교 색소폰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 악기를 연주한다. 9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인 학생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상남도 통영시 동원중학교(교장 배문숙) 운동장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뒤의 시끌벅적함과 요란함이 가득하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색소폰 오케스트라 더샵의 연습이 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느라 분주하던 아이들은 각자의 악기를 손에 쥐고서야 한숨 잠잠해지기 시작한다.

글 _ 편집실

좋아해야 신나게 연주할 수 있다!

"알토는 조금 더 힘 있게 나오자.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소리 내면 좋겠다."

류재현 선생님의 지휘에 단원들의 눈빛이 사뭇 달라진다. 좀 전의 장난꾸러기들은 온데간데없이 악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새롭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곡인 '지금 이 순간'의 악보가 단원들에게 전달된다. 처음 접하는 곡의 악보도 척척 읽어 내는 베테랑들은 2, 3학년.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1학년은 기초연습에 열중한다. 주말에도 연습실에 모여 세 시간씩 연습을 이어간다. 알토,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으로 나뉘는 색소폰 파트와 드럼, 심벌즈, 실로폰, 큰북 등 타악기 파트로 구성된 더샵은 특수편성 오케스트라로 분류된다. 권태훈 담당 교사는 "악기의 음량이 작고 음색이 독특해 합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색소폰이지만 창단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 끝에 선택된 악기"라고 설명한다. 또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좋아하는 곡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연주하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더샵의 레퍼토리는 대중가요, 팝, 재즈, 클래식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이뤄진다. 올해 첫 공연이었던 '통영국제트리엔날레' 개막 공연에서도 자유의 종(The liberty bell; J.P Sousa) 행진곡, 아바 메들리, 어벤져스 OST, 아름다운 강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코로나19 끝난 뒤 연주 여행 꿈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술의 진정한 힘을 믿는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2004년 창단된 더샵은 지역에 음악의 기쁨을 나누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창단 초기에는 10여 명에 불과했던 단원이 현재는 50여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단원이 70여 명이 넘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동아리의 역사가 깊어지는 동안 규모만큼이나 실력도 함께 늘었다. 코로나19로 대회를 치르지 못하다가 지난해에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45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 2019년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는 앙상블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무대에서 손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긴장하는데,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연주를 완성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크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이 같은 성과를 꾸준히 내는 데는 예술교육을 위해 교육가족이 한뜻으로 뭉친 데다, 지역사회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더샵은 2012년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에 선정되면서 경상남도교육청, 통영시, 동원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악기 및 강사 지원을 비롯해 정기연주회 대관 협찬 등 동아리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학생들은 음악적 능력뿐 아니라 바른 인성과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더샵은 단원을 뽑을 때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할 줄 몰라도,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악을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문이 열려 있다. 권태훈 교사는 "보다 많은 학생이 더샵 단원이 되어 음악과 함께 하는 좋은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김지성(3학년) 학생은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는데 연습이 있는 날은 어떤 곡을 배울까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라고 설명한다. 류재현 교사는 "무대에서 손이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아이들이 긴장하는데,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연주를 완성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크다."라며 "아이들이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도 찾아와서 계속 연주하고 싶다고 할 때 뿌듯하다."라고 말한다.

김래원(3학년) 학생은 "통영국제음악당처럼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지만 연주하는 동안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도 받는다."라고 공연의 감동을 전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행사와 정기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무대에 설 날을 고대하며 그동안 연주실력을 갈고닦은 학생들에게는 무척 아쉬운 순간이었다. 권태훈 교사는 "올해는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며 "경연대회 수상도 목표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많은 연주를 기회 삼아 즐겁게 '연주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고 설명한다. 지금은 9월로 예정된 정기연주회를 목표로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맹연습 중이다.

1 오늘은 새로운 곡을 연습하는 날. 지휘를 맡은 류재현 교사가 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Mini Talk



이태일(2학년)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학교 홍보영상에서 오케스트라를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다. 색소폰의 모양과 특유의 음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음악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지만,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공연할 때 뿌듯했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다.



김인성(3학년)

평소에 악기에 관한 관심은 많았는데 색소폰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학교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합주하면서 단원들과 단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추억이 생겨서 좋다. 특히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날 야외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동안 공연이나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마지막인 만큼 많은 무대에 서고 싶다.



김지성(3학년)

부모님의 권유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길에서 어떤 노래나 멜로디를 들으면 이 음악을 동아리에서 어떻게 연주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아리를 좋아한다. 1학년 때 첫 공연은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2~3학년과 따로 연주했는데 우리들의 연주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후에 연주실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다. 아직도 첫 공연을 잊지 못한다.



박유준(2학년)

통영초등학교 시절 관악부 활동을 하면서 색소폰을 연주했기 때문에 꼭 더샵에서 활동하고 싶었다. 색소폰을 계속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 동아리 친구, 선배들과 잘 지내게 되어서 학교생활이 더 좋아졌다. 최근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개막식전 공연 무대에 올랐는데, 무척 떨렸지만,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다.



김래원(3학년)

색소폰 소리는 경쾌해서 좋은데 직접 연주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또 연주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무대에 많이 서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고, 올해는 그동안 못했던 공연과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



유해근
재한몽골학교 이사장

한국과 몽골을 잇는 세계 리더를 키우다!

지난해까지 54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낸 재한몽골학교에서부터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한국베트남학교까지, 국내 거주 이주민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 유해근 이사장. 나그네를 섬기듯,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그를 만났다.

글 _ 편집실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있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의 일이었다. 경기불황에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도 늘어나던 시기였다.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의 무료급식소.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도 하나 둘씩 찾아와 이곳에서 점심을 먹곤 하였다.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였다. 이듬해인 1998년 1월, 강변역 인근의 협소한 지하 공간. 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 모아 무료급식을 하면서 돌보던 이가 있었다. 현 재한몽골학교 유해근(60) 이사장이다. 8명의 아이에게 한국말과 노래 등을 가르쳐 주며 공부방 겸 놀이방처럼 운영하던 이곳은 이주노동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숫자는 20명, 40명, 80명으로 금세 불어났다.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2005년에는 광장동의 컨테이너 가건물로 옮겼다가, 현재의 터에 자리를 잡은 건 2014년 9월. 초·중등부 12학년제인 재한몽골학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몽골의 교육부에서도 학력을 인정해주는 재외학교 첫 사례가 되었다.

"모든 아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학생 수는 늘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학교에 오다 안 오다가 하는 겁니다.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서둘렀지요. 몽골에 가서 교육부 장관을 만났더니, 몽골은 아예 국외에 몽골학교 자체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한국 정부로부터 인가가 나면, 몽골도 재외학교로 인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요."
재한몽골학교가 정규 학교 인가를 받기까지 2년이 소요됐다. 당시만 해도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비자가 없던, 비등록 노동자여서 인가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했던 터였다. 재한몽골학교의 인가는 곧 학부모의 불법체류를 묵인하는 셈이었다.
"'모든 아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들고 교육청을 다시 찾아갔죠. 1989년에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아동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갖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으므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1 다문화가정의 아이도 우리 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유해근 이사장

2 유해근 이사장은 앞으로 터키와 베트남,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전 세계에 학교를 하나씩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가져야 하며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당시의 '모든 학교는 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교육법」 조항도 학교 인가의 걸림돌이었다. 컨테이너 가건물에 입주해 있던 당시로서는 운동장 구비는 말 그대로 사치였다. 유 이사장은 재한몽골학교 인근에 있는 모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운동장 공유를 요청, 그곳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마침내 2005년 2월, 재한몽골학교는 외국인학교로서 정식 인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나그네를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고…"

현재 이곳에는 이주노동자 자녀 외에도 주한몽골 대사관 자녀, 기업인 자녀 등 입학생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몽골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온 학생들도 있다.

재한몽골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영어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은 기본이고, 몽골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운영된다. 말 그대로 몽골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몽골교육과 한국의 교육과정이 융합된 구조다.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모두 540여 명. 유 이사장은 "얼마 전에도 몽골의 재무부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서울에 출장차 왔다가 학교에 다녀갔다."라면서 졸업생 자랑을 하기도 했다.

"현재 주몽골 한국대사관에도 우리 학교 졸업생 3명이 근무 중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봉사하는 졸업생도 있고요. 졸업생들이 몽골로 돌아가 정부 부처나 주요 요직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뿌듯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초창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주노동자 자녀들도 학교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군에 편입되어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유 이사장은 "재한몽골학교는 이처럼 한국과 몽골을 잇는 충실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세계를 리드하는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재한몽골학교 외에도 위탁형 대안학교로서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도 운영 중이다. '나섬'은 '나그네를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고, 나아가서 섬기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나섬공동체'에서 따왔다. 유 이사장은 이 나섬공동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 지난 4월에 새로 출범한 한베학교(한국베트남학교)도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다. 평일에는 방과 후 온라인 기반 수업으로 영어와 베트남어를, 주말에는 학교에 나와 축구와 웹툰 등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이 즐길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베학교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5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베트남인 어머니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시키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자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방학 기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캠프도 열고, 산업현장 견학도 가고, 여행자학교 프로그램처럼 1년에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베트남에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학교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재한몽골학교와 나섬아시아청소년학교, 한베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이 곧 자원이자,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는 유해근 이사장. 앞으로 터키와 베트남,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전 세계에 학교를 하나씩 세워야겠다는 또 다른 꿈도 꾸고 있단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한말에 이미 이주민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호러스 G. 언더우드와 헨리 G. 아펜젤러라는 두 인물이 존재했어요. 두 사람은 당시 고아나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근대적 교육기관의 효시인 언더우드학당을,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세웠지요. 저 역시 이런 분들처럼,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꿈꿔오곤 했지요."

재한몽골학교 이사장실의 문을 열면, 정면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지도다. 유 이사장의 이러한 세계로 향하는 '마음의 지도'가 구현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한몽골학교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지원법」 등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 시대, "다문화가정의 아이도 바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는 유해근 이사장은 지난 4월 6일, 포스코청암재단이 수여하는 '2022 포스코청암상 교육상' 부문을 수상했다.



SPECIAL

신냉전 위기에서 평화교육 톺아보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지 어언 70여 년이 넘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원인과 교훈,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평화교육의 과제를 살펴보고 학교 평화교육과 학교 밖의 평화교육 체험처 등을 소개한다.

20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원인'과 교훈: 평화의 역동성을 키우자
24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를 배워볼까?
27 혐오를 극복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아이들
30 뉴노멀 시대,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본 평화교육의 역할



글 _ 이동기 강원대학교 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원인'과 교훈: 평화의 역동성을 키우자



100시간 협상해서 성과가 없어도 1분간 총을 쏘는 것보다는 낫다

"100시간 동안이나 협상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도 그것이 1분간 총을 쏘는 것보다는 낫다." 서독의 평화정치가이자 안보 전문가인 헬무트 슈미트 총리의 말이다. 명료한 평화 명구도 인류의 어리석음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지난 2월 24일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서로에게 총을 쏘고 있는 시간은 이미 100시간이 아니라 100일이 넘었다. 전쟁 양상은 혼미하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 말은 양측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이 계속 살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5월 중순 현재 이미 양측에는 각기 수천 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 66
>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 99

게다가 4천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인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또 6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난민으로 삶의 근거지를 잃고 안전을 찾아 나섰다. 경제 손실은 아직 헤아리기 어렵고, 종전이나 휴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회와 주민의 상흔은 오래갈 것이다. 러시아도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심지어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직접 개입으로 치닫는다면 그 결과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명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과 난민, 산업과 기간 시설의 파괴와 폐허만이 아니라 무책임한 적대 감정과 폭력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전쟁은 협상과 달라 1분이라도 그 자체의 고유한 역동성과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다. 전쟁은 당사자 모두를 적대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고 종전 후라도 화해를 어렵게 만든다. 한국전쟁은 3년이었지만 그 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대결과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다 합하면 한국전쟁의 기간보다 훨씬 길지만 전쟁과는 달리 어떤 역동성이나 지속성을 창출하지 못했다. 전쟁은 문명적 삶의 정상성의 고삐를 풀어 버렸기에 적대와 불화를 계속 고조시킨다. 100시간 협상해서 성과가 없는 상황은 사실 최소한 적대의 고조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협상은 성과가 없더라도 중하다.

'전쟁 원인'으로 불리는 전쟁 정당화 주장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러시아 측의 주장이었다. 1989-91년 국제 냉전이 종결된 후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계속 동진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꼈기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섰다는 주장이다. 나토 동진을 전쟁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하면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적 패권 전략과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전략 사이의 충돌이 전쟁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탈냉전 후 세계질서를 일방적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러시아는 탈냉전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그것에 걸맞은 안보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과 안보 갈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했다고 여기는 분석이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주장한 구실들을 무심하게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나토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장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나토 가입은 철저히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과 자결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명백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고, 주권 침해다. 안보 이익은 조정과 타협의 문제지 전쟁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반면, 미국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내내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후에도 경제와 외교 및 안보 영역에서도 협력 정치를 선보였다. 그때 분명 양자는 새로운 평화체제 형성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고 평화 협력관계의 제도화를 포기하고 군사동맹의 확대에만 매달렸다.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한 동맹 바깥의 대결 내지 이질 세력은 항상 현실적 또는 잠정적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적'의 경계를 강화하는 군사동맹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우위와 동맹 강화를 목표로 삼게 된다.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 강화는 실상 현실적 갈등 세력 내지 잠정적 적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지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사실 나토 국가들은 이미 돈바스내전 당시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수행했다. 나토는 이미 분쟁 지역의 군사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게다가 미국은 작년 11월부터 전쟁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의 협상 요구를 무시했다.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전쟁 발발 전에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제안했지만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상황은 곧 인간의 이성과 조정 능력을 넘어 안보론에 빠졌다. 갈등이 제어되지 않은 무책임의 대결 정치로 귀결되었다.

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간주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갈등이다. 현실의 대결과 적대는 항상 역사를 소환하는 법이다. 두 국가의 역사적 뿌리가 같음에서 양국의 깊은 문화적 연루와 긴밀한 인적 연결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양국 사이의 불화가 강조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한 사건이나 1930년대 농업 집단화의 결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화, 즉 '홀로도모르'가 새삼 주목받는다. 다수 우크라이나인들은 서구 지향과 반러시아 감정이 뚜렷하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로 보는 러시아인들은 70%에 달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역사적 갈등과 정체성의 차이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항상 불바다일 것이다. 그것 또한 전쟁의





필연성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국민 결집과 동원의 이데올로기임에 더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나토 동진과 안보 이익 주장 및 역사적 갈등에 기인한 이질적인 국가 정체성은 전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양측 정치엘리트 모두에게 각기 전쟁 정당화의 도구다. 역사에는 항상 평화의 대안이 없지 않다. 전쟁은 안보 구조나 패권 대결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과거에 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현재 자아상과 타자상이 다르다고 해서 곧장 전쟁이 일어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전쟁의 배경이나 이유가 아니라 결과이자 변명이다. 반대로 전쟁은 늘 그와 같은 요인을 내세운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선동과 긴장 고조를 제어하지 않는 행위의 파국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교훈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 무력이 아닌 협상을 통해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계 전역에서 안보 동맹 강화나 군사력 강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득세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파국을 낳을지는 이미 20세기에 충분히 보았다.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보편적 곤경과 위기에 맞서 국제 협력과 초국적 연결이 강화되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각국은 인습적인 국가안보를 내세운 군비 강화에 매달리게 될 위험이 크다. 그것 또한 전쟁의 역동성이다. 그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이유나 근거가 있음에도 전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너무 손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았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은 탈냉전이라는 일시적 성취에 취해 안보 동맹이나 공동의 경제 이익에만 주목하다 평화 질서의 근본적 재창출을 놓쳤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갈등과 위기가 자가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하더라도 순식간에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이 전쟁이 잘 보여주었다. 갈등의 고조와 적대의 상승을 억제하는 온갖 제어 장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적대적 갈등이나 전쟁과는 달리 화해나 평화는 손쉽게 발생하지도 않고, 한번 개시되었다고 잘 지속되기도 어렵다. 그렇더라도, 아니 그렇기에 평화의 원인과 요인, 평화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화의 역동성을 창안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어떤 것도 곧장 전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반면, 갈등 악화를 막고 긴장 고조를 제어하는 모든 노력은 다 평화의 원인이 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뜻한다.

글 _ 편집실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평화를 배워볼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지 어언 70여 년이 넘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크고 작은 폭력에 대해 평화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교육'이 가능한 곳을 소개한다.


1


2



3

1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조감도
2 오는 6월 말 개관을 앞둔 평화교육원 실외 정원
3 실향민들이 고향의 '연백장'을 본떠서 만든 '대룡시장'

6월 말 개관을 앞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하 평화교육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평화교육 기관으로 '통일'이 아닌 '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화교육원이 들어선 곳은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옛 난정초로 인천시교육청은 평화교육원 건립에 자체 예산 16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12㎡로 지상 2층 교육동(전시관)과 지상 3층 생활동(숙박동)을 구축 중이다. 생활동은 2023년 3월 공사가 완료되며, 전시관 등을 갖춘 교육동은 오는 6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교육동은 평화교육을 위한 체험 및 교육 공간과 북카페 등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실내에 마련된 3개의 전시관은 인천의 특색을 반영한 평화·공존 교육을 위한 전시물로 구성했으며, 난정초교와 난정리 지역의 역사를 담은 난정관도 별도로 만들었다. 평화교육원은 6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강화군 관내 학교와 시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8월 8일부터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1일 최대 7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남경화 장학사는 "평화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결국은 공존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한 번쯤 평화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평화와 공존을 테마로 한 각종 전시관 외에도 평화교육에 교동도의 물적, 인적 자원이 총망라되어 운영된다. 망향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연백군 주민들이 보일 정도로 교동도와 북한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망향대에서는 1960년에 황해도에서 온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마음을 담아 북한 연백군이 보이는 산 중턱에 비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화개산 정상에 오르면 북한의 연백평야가 눈 앞에 펼쳐진다. 화개산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면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대룡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대룡시장에서 이뤄지는 '평화보물찾기'와 '제비이야기' 등은 평화와 갈등 해결을 설명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4 망향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연백군 주민이 보인다.


4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방공호도 그중 하나다. 인천 교동도는 북한과의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교동도에는 북한의 포격 도발 등에 대비하여 마을주민들의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방공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평화교육원 옆에 자리하고 있다. 평화교육원은 실제 화장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이곳 방공호에서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을 계획 중이다.

남경화 장학사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방공호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관련 영상도 이곳에서 시청하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초·중·고 교사 및 평화교육 전문가들이 TF팀을 꾸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 앞으로 학교, 시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평화교육원을 통해 학교 평화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평화와 공존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써 앞으로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물론, 평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마을을 조성해 운영하며 남북한 교육교류도 추진한다. 그뿐 아니라 평화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인천지역의 신규 교사와 공무원,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을 진행하는 등 평화교육 역량을 키워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동아시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 032-423-3303
위치 인천광역시 광화로 교동면 교동서로 378번길 28



국가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은 인류 보편의 과제인 평화 추구와 인권회복, 평화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조성된 공원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7년에 걸쳐 지속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제주4.3평화공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역사교훈의 장으로 위령제단, 위패봉안실, 위령제단, 봉안관, 각명비원, 행방불명인표석 등이 있다. 위패봉안실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념의 공간으로 희생자 14,533명 중 14,412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에서는 4.3사건의 발발, 전개, 결과, 진상규명운동까지 전 과정이 차례로 펼쳐져 있어 전시물을 관람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또한 6~11세를 대상으로 한 4.3어린이체험관이 있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고도 평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4-723-4344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품은 DMZ박물관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이 바라보이는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안에 건립한 DMZ박물관(강원 고성).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의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평화가 왜 중요한지, 평화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세계 냉전의 유산인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국전쟁 전후의 모습, 정전협정으로 생긴 군사분계선, 그동안 민간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독특한 생태환경 등을 전시물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DMZ박물관에 담았다.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전시관에서는 한반도의 비극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과 더불어 마음껏 자유롭게 가볼 수 없는 땅 DMZ의 탄생에 감춰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휴전 발효 당일까지 목숨을 건 고지쟁탈전 과정에서 동족 간의 지워지지 않은 수많은 상처를 남긴 비극의 땅, DMZ를 소개한다. 그 밖에도 DMZ는 남북의 군사가 총을 겨누고 서로 지켜봐야만 하는 곳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어떻게 습지로 발전했는지 잘 보여준다. DMZ박물관에서는 비대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어와 어린이용 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33-681-0625
위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글 _ 박수경 경기 파주 운정고등학교 교사

혐오를 극복하며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아이들

'혐오 표현'을 줄이는 '평화 감수성'에 관심을

2020년 6개월 만에 210여 개 국가를 강타했던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의 교육 현장도 3차에 걸치는 개학 연기 등 유례없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곳곳에서 학력 격차를 말하고 있을 즈음, 필자는 더 심각한 청소년의 '혐오 표현' 증가[1]에 눈길이 멈추었다. 비대면 급등과 SNS 사용이 집중되면서 서로의 개성인 프라이버시를 저격하는 '혐오 표현'의 증가로 사회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필자는 이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았다. 그 결과, '『인생○○주제[2]』 소집단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평화·통일교육을 구안하여 혐오를 극복하고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평화·통일 담론으로 긍정적으로 회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주제에서도 사용 가능한 표현

한 곳에 고정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의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다는 교육철학을 지니고 20년을 달려온 터라 수업을 기획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즐거움'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한결같았다.

'평화 감수성' 기르기는 마을에서부터

자유학기제 수업을 기획해보았던 2016년에는 한국의 IMF 외환 위기 이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쏟아졌었다. 이때부터 필자는 학업 스트레스보다는, '학교는 즐거운 곳, 공부하고 싶은 호기심을 주는 수업에 방점을 두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는 훈풍 속에서 다수의 체험처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간디의 명언을 '평화로운 마을이 아이들을 구한다.'로 바꾸어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체험학습으로 연계하여 활동하다 보니, 하나의 마을 지도로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조력으로 발굴된 마을교육과 함께 병행된 것이 바로 '평화·통일교육'이었다.

진실은 '통일교육'을 위한 '평화교육' 안에

'평화교육'과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여러 저명하신 분들의 연구가 많이 있겠으나, 현장 교사인 필자에게 '평화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맞닿은 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평화·통일교육'은 이에

1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만 15~27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 한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수업을 일컬음. 예를 들어, '인생맛집', '인생영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에게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는 특정 활동을 빗댄 조어임. 본 연구에서는 '인생철학주제, 인생평등주제, 인생평화주제, 인생통일주제' 등 4개의 영역으로 조어하였고, 본 활동을 진행하였음.

비해 '남북의 분단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최선의 교육' 어디쯤일 거라고 테두리를 지어 보았다. 필자에게 '평화교육'은 '통일교육'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통일교육'에 피로감이 높아진 학생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아이들이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평화·인권교육'을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이었다.

그동안 50여 개에 이르는 일련의 '평화교육' 이후 차츰 '통일교육'의 기반이 조성되어 '평화·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사람책도서관'프로그램을 '통일사람책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여 실시했을 때이다. 학생들은 새터민 강사를 초청하고, 환영하고, 질문하고, 게임을 하는 모든 과정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며 매우 즐거워하였다.

비단 '평화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중심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누군가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대접해주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것 같다.

평화교육이 가져온 평화 지수 신장

20여 년의 오랜 도덕수업과 인권수업, 학교폭력 예방수업, 평화수업, 평화·통일수업 등을 통해 어쩌면 평화 감수성 향상 수업은 필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수업상의 화두였던 것 같다. 매년 3월 초가 되면 수업을 위한 약속을 학생들과 정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이다. 반드시 모둠으로 진행하며 소통을 통한 평화 감수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은 주로 평화로운 교실 약속과 궤를 함께한다. 이러한 교실 속 실천이 학생들을 바깥 사회에서의 평화로운 시민으로 행동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약속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모두는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다.
둘, 수업 중 의견을 공개하지 않는다.
셋, 많은 의견 중에 소중한 의견이 있다.
넷, 모두는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

지난해에는 인생철학→인생평등→인생평화→인생통일 순으로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화 감수성과 평화 지수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자아론(나), 인간론(너), 가치론(우리), 세계론(세계)에 대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편, 긍정적인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통일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통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의 방해물인 편견과 혐오를 반드시, 먼저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격차, 외모차별, 새터민차별 등을 주제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북분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현실에서 거부감 없이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의 하나로 '평화'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은 '인생평화'를 주제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단어를 사진으로 표현하거나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한 학생은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의 장점을 찾아보면서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아시아 횡단열차를 꼭 타보고 싶다."라며 친구들과 '인간열차'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통일'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을 기획하면서 '평화 지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인 상황을 담은 사례는 없어서 [그림1]의 혐오 피라미드에 착안하여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편견과 혐오 표현은 하위에 자리 잡고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일반적인 폭력 사태의 시발점이기도 한 점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 ☑ 자기 생각 중에 편견과 혐오가 존재하는가?
- ☑ 일상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선입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가?
- ☑ 철학 수업을 통해 다양한 편견과 근거 없는 혐오를 개선할 기회를 가졌는가?
- ☑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평화'라고 생각하는가?

위 일련의 질문들의 답을 'Yes'로 학생들과 도출해내면서, 그 과정에서 평화 감수성이 신장되기를 바랐고,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교실에서 실천을 통하여 형성된 평화 감수성은 차세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동력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로 반드시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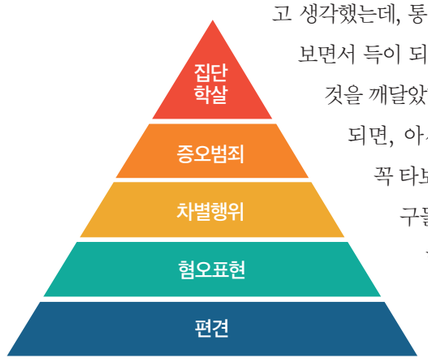




중학교 평화·인권 현수막 제작 도덕수업



평화도서관



[그림 1] 혐오 피라미드

글 _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뉴노멀 시대,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본 평화교육의 역할



위기의 시대, 국제정치의 위기

위기의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아직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들의 시민 가운데, 상당수는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선진국들에도 피해가 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중국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에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마저 최근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북한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보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엔데믹 선언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와 환경의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멸종되었으며,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인간 역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계보건 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쟁의 명분은 결국 힘과 이익뿐이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전쟁이 명분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을 위협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즉, 이번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전쟁을 중단시킬 만큼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수입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원유와 천연가스 역시 국제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화폐공급량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상승의 도화선이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 66
>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세계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 99

위기의 시대, 정치의 위기는 시민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정치는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에서 무능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 세계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블랙홀에서 빠져들고 말았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시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와 생필품을 사재기했다.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록다운을 발표했다. '유럽은 하나'라고 외치던 유럽연합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이웃 나라에 환자가 많아져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다. 개인과 국가는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 실천보다는 이기적인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기적인 방안은 언제나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갈등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역시 자국의 국가이익에만 매몰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이 전쟁을 막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했다. 정치는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서도 전쟁에서도 이기적 태도와 행동을 막지 못했다. 개인이나 국가의 이기적 행동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마치 부메랑처럼 더 큰 위험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국가의 '부활'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주체

세계보건 위기와 함께 다시 '국가'가 부활했다. 세계화 시대, 국가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었으며 시장의 자율성은 증대되었고 세계시장은 통합되어 갔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게 되었다. 자유무역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는 중단되었다. 대신 개별 국가는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더 강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국가의 부활과 함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다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종주의 부활로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혐오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쳤고, 몇몇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가 부활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Brexit)를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유럽연합과 결별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푸틴이 속한 통합러시아당은 민족주의적 담론을 근간으로 집권한 정당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을 정당화하려 한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자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변국들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는 세계보건 위기와 함께 부활했지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만은 없다. 국가는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물론 누구도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을 때, 비도덕적인 국가 행위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또한 개별 국가마다 권력과 능력의 차이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모든 것을 맡기면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는 더욱 더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감염병 위기와 기후나 환경 위기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개별 국가의 능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분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경주하는 새로운 행위자들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하던 혐오와 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며 연대하는 세계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이러스 공포에 대해서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점은 지구라는 공동체에 대안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류에게 공동으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계시민은 인류가 처한 공동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도덕적 실천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연대와 실천을 위해 경주(傾注)함으로써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체이다. 세계시민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어떠한 행위자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지구의 현실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았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구적 불평등과 부정의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평화와 인권의 실현은 오지 않는다. 역사는 국가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평화'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제 세계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위기와 평화교육의 역할

코로나19와 전쟁 외에도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와 위험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위기와 위험에는 국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제협력과 세계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의 선물이 될 수 없다. 국가나 정치권력을 가진 자들도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위기와 위험에서 시민들을 지켜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와 위정자(爲政者)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이고 비가시적인 위기와 위험에 관한 논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결국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일상의 평화와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시민들이다. 그런데 시민이 위기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어 평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한 국가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타국의 시민들과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 사회는 국가와 같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원 동원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시민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비판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의 형태로 자원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국제협력과 연대를 주도하고 국가 권력에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이 언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2019년 기후위기 파업(Global Climate Strikes)과 코로나19로 인한 인종 혐오에 대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세계시민들의 저항과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세계시민을 육성해야 한다. 위기와 위험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 공포는 무질서와 혼돈, 약탈과 폭력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태도와 실천만으로 부족하다. 개인이 평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평화적 태도와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천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하려는 국가와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새로운 지구적 공동체를 꿈꾸고 실현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해 지구적 정의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평화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인 정치참여방안과 지속가능한 국제연대와 협력방안을 고민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일이다. 또 다른 미래는 또 다른 교육에서 시작된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_ 교육 분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창의적 교육의 미래 인재 육성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와 20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 내 윤석열정부의 5년간 주요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담겼다.

0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외의 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SW·AI 등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과 에듀테크 등 신기술을 적용·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예비교원과 현직 교원의 SW·AI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문제로 꼽히는 디지털 격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단계부터 학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고,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를 지역에 설치하여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를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바꾸고,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며, 개인에게는 디지털 관련 교육·경험·자격을 디지털배지로 부여하여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재양성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를 구축한다.

0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학습지원과 진로·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우선하여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을 위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교육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한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역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를 신설하고,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하고, AI 학습시스템 등 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사교육 경감을 도모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대학 내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학생별 학습경력을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하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0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와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여 대학이 국가를 이끄는 역동적 혁신 허브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대학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는



자료사진 대구하빈초 디지털 신기술 접목 실감형 수업



자료사진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요건 등 대학규제를 지속 혁신한다. 또한,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석사 패스트트랙 등 학사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학생 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대학을 지역창업허브로 육성하고, 나아가 창업공간·장비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실·한계대학은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등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0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우선하여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도 확대하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도 강화한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하며, 디지털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을 확대한다.

평생교육에서는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0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도 도입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을 운영하고,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 수요맞춤형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원) 육성을 위해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과 함께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 역할도 강화하며,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평생교육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학 역시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초·중·고생 교육회복에 대학생 튜터가 나섰다!

글 _ 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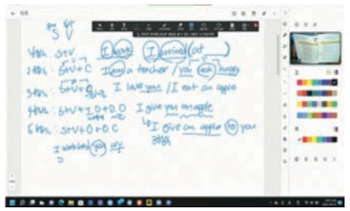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란?
'초·중등 학생'은 학습 보충과 심리·정서적 지지를 얻고,
'대학생'은 교육봉사 경험과 장학금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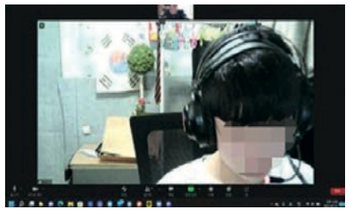
5월부터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본격 운영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이하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4월에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하면서 일부 학교 중심으로 튜터링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1~4명)로 학습 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1]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심리·정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 결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심리·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교 학생은 대학생 튜터가 나누어 주는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학습결손을 보충하게 되고, 미래 교사를 꿈꾸는 교·사대생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 기회를 얻게 된다.





비대면 튜터링 활동



대면 튜터링 활동



메타버스, 비대면 튜터링 활동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상담' 집중 지원

대학생 튜터링 활동은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학교의 상황에 따라 활동 방식(대면, 비대면, 혼합)과 시간(방과 후, 주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학생은 학교 담당교사와 튜터링 활동 내용, 방식,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튜터링 활동 중 수시로 학생의 학습 수준과 상황, 향상도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다.

튜터링 활동 내용은 초·중·고교 학생의 수요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다양한 교과에 대한 학습 보충과 더불어 진로 및 고민 상담,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법 등에 대해 대학생 튜터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받을 수 있다.

대면 튜터링 활동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진행하며, 비대면 튜터링 활동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2]을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튜터링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의 흥미도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메타버스 유료 플랫폼(MOIM)도 무료로 지원한다.



1 지난해 7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누적 방지와 신속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음

2 온라인클래스, 메타버스(MOIM), 줌(Zoom), 행아웃,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등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 튜터링 운영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지난해 10월 27일 6개 관계기관(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14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2월 전면 시행에 앞서 한 달간 17개 기관(초·중·고 9개교, 대학 8개교), 36명(초·중·고 26명,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선도 운영을 실시하여 사업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2022년 3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중등학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아 '초·중·고교 학생-대학생'을 연결하였다. 학교와 연결된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필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튜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대학생 튜터링 사업 진행 절차는 다음(아래 표)과 같다.

표 - 대학생 튜터링 진행 절차

수요 신청	대학생 모집, 연결(매칭)	사전교육, 협의	학습 지원 진행	참여자 만족도 조사
학교 등 기관 (시스템 또는 공문)	대학	대학, 학교 등 기관	대학생-초·중등 학생 (대면, 비대면)	한국장학재단

*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초·중·고교 학생 지원

튜터링 참여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과목의 보충과 상담 등을 받고 싶은 초·중·고교 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학생 튜터링 사업의 참여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대학별 선발 기준에 따라 추천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이후 학습 및 진학지도, 안전사고 예방 등 6차시에 걸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성범죄경력조회 후 연결된 학교에서 튜터링 활동을 시작한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대생은 튜터링에 참여하는 시간을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3]

3 ① 국가근로장학금(시간당 12,500원) 전액 국비 지원, ② 교육봉사시간(60시간) 및 학점(2학점) 부여 가능, 세부내용은 소속 대학 자체 규정에 따름

튜터링의 핵심은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간의 연결

대학생 튜터링 사업의 핵심은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의 다양한 조건을 조율하여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5월 23일 현재 약 8,700명의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과 연결되어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연결이 진행되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의 조건이 맞으면 바로 연결되어 활동이 시작되지만, 각자 희망하는 활동 조건(시간, 장소, 방식 등)이 달라 연결되지 않거나, 신청한 초·중·고교 학생 대비 참여 대학생이 부족하여 연결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튜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교육청과 참여대학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고 있다. 협의회는 참여대학을 대표하는 주관대학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의 연결 조정, 대학생 사전교육,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협의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못한 초·중·고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회복 프로그램(기초학력 지원,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자체 교육회복 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로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갈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의 상호 협력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2022년 신규 사업이다. 동 사업이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교수·학습 역량을 향상하며 △효율적인 수요 신청 및 연결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 등 보다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실있는 튜터링 사업 운영을 위해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범대학이 대학생의 교수·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많은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스쿨포유'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스쿨포유(School for You)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합니다.

① 장기 입원, 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지속 지원
②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학교 복귀 시 학력격차 해소
③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기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동영상수업)
④ 실시간 수업을 통한 주요 교과의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화상수업)
⑤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유급 방지 지원

문의: 스쿨포유 교무실 1544-1640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생태학교'

학교 숲·텃밭…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친환경생태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친환경학교 브랜드로 학교 텃밭, 학교 숲 등 생태 시설을 기반으로 생태 감수성 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20년 52개교가 참여한 이래, 올해 180개교로 확대되어 학교별로 다양한 생태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_ 편집실 **사진제공** _ 예당고등학교·천태초등학교·전라남도교육청









1 예당고 일회용컵 줄이기 활동
2 천태초 마을학교와 함께 하는 허브 심기
3 천태초 '플라스틱 안티팬' 활동
4 여수구봉초 트리하우스
5 문덕초 학교 텃밭
6 천태초 노작 활동
7 예당고 학교 숲
8 예당고 QR코드 수목표지판









보성군 예당고등학교(교장 정회삼)에는 반마다 '환경 지킴이'가 있다. 에코 환경 동아리 학생들로, 이들은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환경 소식지를 만들어 학급 게시판에 안내하는 활동을 한다. 학교 숲에는 식물 상태를 파악해 QR코드 수목표지판을 만들었다. 어두운 등하굣길을 밝게 비추는 태양광 LED 조명도 모두 이 학생들의 작품이다. 2019년 아나바다 활동에서 착안해 시작한 '예나바다' 운동은 이젠 학교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학생들은 지난 1월 예나바다를 통한 기부물품 판매수익금을 보성군 득량면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금으로 전액 기부했다. 김덕환 예당고 교사는 "친환경생태학교를 3년째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왜 해요?'라고 묻던 학생들이 이제는 탄소중립이란 의미도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말한다.

예당고, 탄소중립 실천 모델 개발… 학교 테마별로 각양각색 운영

친환경생태학교는 일회용품 안 쓰기를 비롯해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다. 지역의 자연환경,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계절, 시기별로 꾸준하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0년 52개교를 지정한 이래, 올해는 친환경생태학교가 180개교로 늘며 생태시민교육 운영 성과를 주변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당고 생태교육은 수업시간에도 계속됐다. 과학 시간에는 마른멸치 해부 실험으로 생물농축과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을 탐구하고, 수학&융합 교과 시간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이상기후 상관관계를 분석해 탄소중립 정책을 세우기도 했다. 탄소중립 표어 제작, 목공교실, 하바리움 볼펜 제작 등 다채로운 활동도 연간 이어졌다. 그 결과, 학생들의 꿈에는 나무의사, 환경정리사 등 새로운 직업 목록이 하나둘 생겨나는 중이다.

이처럼 친환경생태학교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학교를 꿈꾼다. 참여학교는 생물다양성과 자연, 기후변화, 에너지, 세계시민의식, 건강과 웰빙, 자원순환, 수자원 등 총 7개 주제 가운데, 1개 이상을 선정해 중점 운영하게 된다. 학교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택해 학교별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생태환경 실천교육, 탄소중립 중점교육, 학교 숲·생태놀이터 조성 등으로 운영 분야를 세분화해 교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학교 숲·생태놀이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닌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 과정부터 참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예당고는 건물과 건물 사이 시멘트로 덮인 공간을 학교 숲으로 조성해 학생들의 쉼터이자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공간 설계에 직접 참여해 중정형 모델을 제안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학교 숲을 가꾸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운동장 공터에 트리하우스를 만든 여수구봉초, 학교 숲을 야외교실로 활용하는 문덕초 등 학교마다 특색 있게 숲을 조성·활용하고 있다.

화순 천태초, 환경·생태 실천 운동 전개

화순군 천태초등학교(교장 이현희) 아이들은 플라스틱 '안티팬'으로 불린다. 환경오염 주범인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 수업 시간에 플라스틱 사용을 반대하는 로고를 만들고, 로고를 넣은 시장 가방과 용기를 제작해 실천에 앞장섰다. '플라스틱 안티팬' 동아리 아이들은 이를 환경·생태 전반의 실천 운동 챌린지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홈페이지와 SNS(밴드)에 활동 영상을 공유하고, 스스로 공익광고, 환경 지킴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마을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두드러졌다. 마을주민들은 학교와 함께 교내 허브 하우스를 만들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10종 이상의 허브를 가꾸며, 직접 재배한 허브로 '차 우리는 시간'을 통해 다도를 배웠다. 허브 관련 동시 짓기 대회, 허브향 달인 찾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또한, 학교 텃밭과 마을농가 텃밭에서는 아이들이 '꼬마 농부'가 됐다. 마을주민은 씨앗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수확물은 수업 시간에 활용했다. 음악 시간에는 수확한 무, 당근을 활용해 채소 피리를 만들고, 과학 시간에는 교정의 꽃을 활용해 지시약을 만들었다. 박지선 천태초 교사는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 교내 종이컵을 없애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작은 실천을 생활화하는 중"이라며 "2020년 농촌유학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든 덕에 마을주민과 협력이 잘 된다. 앞으로는 로컬푸드, 환경운동단체 등과 연계해 생태교육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친환경생태학교 180개교로 확대… 전담조직 신설 등 체계적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은 그간 친환경생태학교의 우수 활동 사례를 모아 지난 2월 『학교생태환경교육, 이렇게 해봐요』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3월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인재과 내에 전담 조직인 기후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오산정 전라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팀 장학사는 "올해 말 도시형 학교 숲 모델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사용자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학교 설명회도 열고 있다. 앞으로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생태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표 -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분야별 개요

분야	생태환경 실천교육	탄소중립 중점교육	학교 숲·생태놀이터 조성
목적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생태시민교육 활성화	탄소중립실현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탄소흡수원 확대 및 생태환경교육 공간 조성
운영 필수 사항	• [공동실천과제] 일회용품(1회용컵, 물티슈, 페트생수) 쓰지 않고 다회용품 쓰기 • [인식개선] 교원(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컨설팅(연수) 1회 이상 운영 • [실천문화] 학생 기후환경동아리 1팀 이상 운영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주제 중 1주제 이상 선택 운영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주제 중 '기후변화' 운영 (3주제 이상 운영)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주제 중 '생물다양성과 자연' 운영 (1주제 이상 운영)
공모 학교 수	146교	18교	16교

EDUCATION NEWS

vol.479
JUNE

NEWS 01

2022 학교예술교육 캠페인 '예술온교실' 실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 학교예술교육 캠페인 '예술온교실'을 진행한다.

예술온교실은 학생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국 온(모든) 교실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급이나 학생 예술동아리에서 활동한 다양한 학생예술활동 영상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예술온교실' 캠페인에는 101개교 5,396명이 참여해 182개 영상을 출품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도 이어진 학생예술활동 우수 사례들을 확산·공유했다. 2022 예술온교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음악·미술·연극 및 융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교과수업과 학생 예술동아리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캠페인 주제에 맞는 3분 내외 영상을 제작해 학교예술교육포털(https://artsedu.kice.re.kr)에 업로드하면 된다.

NEWS 02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 교원 격려 및 포상

교육부는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유공 교원 3,182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훈·포장 34명, 대통령표창 95명, 국무총리표창 109명이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표창 수상자는 2,944명이다. 수상자에는 해마다 학생 시집을 발간하는 등 학생 창작활동을 토대로 공교육 역할 정립에 기여한 최은숙 공주여중 교사, 민주적 리더십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한 고혜정 양지고 교장 등이 포함됐다. 훈·포장 대상자 중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10명에 대한 시상식은 5월 20일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별도로 개최됐다.

한편,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들이 가슴 속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스승의 날 웹페이지 개설 등 비대면 이벤트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

글_이선영 경기 백석고등학교 교사



이선영 선생님은 현재 경기 백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중학교, 일반고, 과학고에서 근무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또한, 학생 사고 기반 수학 수업, 개념적 이해 기반의 수학 수업 등 학생들이 수학 개념 이해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수학교육 연구를 해왔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가 운영되지 못했던 건 교사로 살아온 10여 년의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었다. 방학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수도 있구나! 급하게 필요한 에듀테크를 찾아 익히고, 수업 자료를 그에 맞춰 다시 디자인하는 것뿐 아니라 출석을 재촉하고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급급했던 학교 현장, 모든 학생이 배움을 위해 제대로 배려되었는가?

교사는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업무용이든 개인용이든 노트북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휴대전화만 겨우 가지고 있거나 집에서 개인적인 학습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터넷이 집에서는 지원되지 않기도 했다. 파일로 올린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출력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가 ‘아차!’ 했던 순간이 있었다. 집에 프린터기가 있는 학생이 몇이나 있겠는가. 급하게 시작된 원격수업은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맞물리면서 교육적 불평등을 수면 위로 올렸고,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의 수업을 만들어냈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는 학교 현장을 보면 약 2년 동안 학교 교실보다 원격으로 더 많이 행해진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그 차이가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더 커지리라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 생각된다. 실제로 BBC 뉴스

+ 포스트 코로나

(2020.6.7.)에서도 2007년 미국 폭설로 인한 단기 휴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고 장기간의 휴교는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학년이 어릴수록 인지 및 정서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지 않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보고했다.

최근 학교는 다시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또래와 같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복도에서 모여 재잘거리다 소풍 가고 싶다고 교사에게 매달리는 학생들을 보니 마스크만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제는 제법 학생들이 이전과 같은 학교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발생한 학력 격차와 정서적 결핍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낮아진 학력과 벌어진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해 학생, 학부모가 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사교육, 즉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은 낮아진 학력을 회복하고, 벌어진 학력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사교육과 학력의 관계는 이전부터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주제였지만, 최근 학생들의 교육적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얘들아, 학원에 왜 다니니?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학원에 다니라고 해서, 이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다니니까 불안해서, 혼자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에 다닌다.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여러 이유의 근간에는 학교 수업과 평가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학원은 학생들의 학교 수업과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 나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학원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분명 학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존재한다. 학생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다.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수학을 할 수 없는 아이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긴장감이 높거나, 천천히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학교 수업은 한 학급에 있는 약 25~30명의 학생이 가진 지식의 양과 이해 속도를 모두 맞출 수가 없다. 중간 정도에 맞추어 수업하면 천천히 생각하며 이해하는 학생들은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데, 그 부분을 학원이 보충해줄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도 이를 보충해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지만, 학원이 이 부분을 적절하게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학원에서조차 천천히 생각하며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선행학습과 고난도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 더 성행한다는 것이다.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이 뭐가 문제인가요?

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학원에서 더 많이, 더 빨리 배우는 게 무슨 문제인가? 선행학습이 학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선행학습은 학생이 실제로 수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의 대부분은 어떤 수학을 알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학을 아는 건 수학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난 선영이라는 사람을 알아”라는 말은 선영이란 사람이 여자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의 몇 가지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난 선영이란 사람을 이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몇 가지 정보를 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수학에서 ‘이해’는 이전에 배운 것과 현재 배우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즉, "삼각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요.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입니다."라고 말하는 학생은 삼각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빗변, 밑면, 높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왜 직각삼각형에서만 삼각비를 이야기하는지 물으면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것은 삼각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단편적인 지식만 외운 학생은 나중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게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은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행학습은 결국 다시 공부해야 하는 허탈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둘째, 학원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원에서는 열심히 배울까? 여기에서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 행동 자체만으로 배움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자.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학원에 가서 하면 된다는 것처럼 학원은 학생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된다. 이전에 한 지인이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 방문하여 수학 수업을 보았는데 모든 학생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너무 달라 인상 깊었다고 한다. 물론 외부 참관인들의 교실 방문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아일랜드의 수학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학교가 아니면 주어진 과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 했단다. 나와 함께하는 학생 중 몇 명은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한다. 수학 문제가 빼곡한 문제집을 푸느라 수학 수업에 참여할 여유가 없다. 수업 중에 나눠준 활동지가 없어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묻자 학원에 있단다. 학교 수업 중에 제시한 과제는 학원에 가져가서 그것을 배운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제를 하느라 바쁘고, 학원 과제를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 학교 과제는 학원에서 그 방법을 전달받는 것이다. 매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핑계를 제공하는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생각하는 힘을 없애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셋째, 선행학습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학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과도한 문제 풀이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학원 숙제를 하면서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알려준 전략을 그대로 사용해볼 뿐이고, 그마저도 잘 안되면 답지를 베낀다. 학교에서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준 과제를 학원 강사가 대신 고민해서 풀이 전략을 전달해준다. 학생이 생각할 힘을 기를 수가 있겠는가? 반짝 효과를 보는 듯했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한 학생은 그 한계에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다.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확산시킨다. 수학을 이해하는 데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힘은 실제로 천천히 깊이 사고할 때 길러진다. 그런데 무조건 빨리 배우는 것이 강조되는 선행학습은 천천히 깊이 사고하는 학생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수학을 하는 힘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조 볼러 교수는 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을 닫아버린다고 강조했다.

수학영재와 선행학습

국가발전을 위한 수학 및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영재학교에서 학교별로 약 1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이들은 정말 수학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일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수학영재는 선행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만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소위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기도 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을 해온 학생들은 과학고등학교에서 매우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을까? 그렇지 않다. 초기에 선행학습의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깊이 사고해본 경험이 없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학생들은 곧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요"라며 한탄했다.

수학교육과 뇌과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스탠퍼드대학의 조 볼러 교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믿음이 수학 성취도가 낮은 학생뿐 아니라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스탠퍼드대학에서 '재능있는 아이'의 딱지가 붙은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재능있다고 믿는 자신이 질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실수나 실패를 누군가 눈치챌까 봐 숨기려 노력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수준에서든 수학이 어렵다는 사실에 맞닥뜨리면 이를 헤쳐 나가기보다 "결국 나도 재능이 없었구나!"라고 포기한다고 한다. 만약 이들에게 '타고난 재능'이란 딱지가 없었다면 자유로운 질문, 도전과 실패를 통한 배움 속에서 더 큰 인재로 성장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며, 배우는 속도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기보다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아직 어린 학생들은 고정된 재능이 아니라 유연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풍부한 존재들이다. 선행학습으로 만들어진 영재들에게 '타고난 재능'이란 딱지를 붙여 그들의 가능성을 닫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선행학습보다 '이해'가 중요하다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학습보다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는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보다 이전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연결성을 아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학을 이해하게 하려면 빠른 속도에 초점을 둔 선행학습보다 학생의 사고에 초점을 둔 수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엘리 골드렛의 '더 골'에 나오는 다음 글은 왜 학생의 사고에 초점을 둔 수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 배운다는 것의 최대 장애물은
>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 그것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기회를
> 영원히 박탈해 버리기 때문이다.
>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야 진정한 배움을
>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 생각하는 인간을 만들려면 명령형인 "!" 부호보다
> 의문형인 "?"부호가 훨씬 더 좋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 본인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현하도록 도와줄 때 배움이 일어난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수학을 발견하게 하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어떤 교사는 아무리 과제를 주어도 학생들이 하지 않으니 소용없다, 교실에서 열심히 설명해줘도 듣지 않고 무기력하다고 한숨을 내쉬지만,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부족한 학생 탓이라고 돌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교사도 어떤 일에는 게을러지고, 하기 싫어 미루곤 하는데 학생들은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난해한 수식이 가득한 수학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코로나19로 커진 학업 격차와 학력 저하의 문제점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생각하는 힘이 있는 학생들은 원격수업이든, 교실 수업이든 능동적으로 배움에 임할 것이다. 이것은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을 위한 교사의 도전과 변화다.

환경컨설턴트
라남용
㈜라나에코컨설턴트 소장

생태계 관찰·기록·평가하는 전문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로부터 필수적인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인류는 자연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를 보호해야만 한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1.5℃ 상승억제를 위해 지혜를 모은 바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기업의 성패 요소로 ESG를 꼽고 있는데, 그 맨 앞자리의 'E'가 바로 '환경'이다. 이에 기업이나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환경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환경컨설턴트다. 환경컨설턴트가 하는 일, 필요한 역량,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_ 편집실



2020년 7월, 환경부는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금개구리가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금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2010년까지만 해도 두웅습지의 상징이었다. 양서류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유용한 생물지표(Indicator)로 알려져 있다. 두웅습지 금개구리의 귀환은 국가에서 추진한 첫 번째 양서류 복원사업이었다.

이 환경프로젝트를 주도한 회사가 최근 세종시에 새로 둥지를 튼 ㈜라나에코컨설턴트(이하 라나에코)다. 라나에코의 환경컨설팅 사업은 금개구리의 복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라남용 소장이 이끈다. 학위논문 표제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특성, 증식기술 및 복원전략>(2010년). 라 소장은 2011년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전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또 겸임교수로서 공주대학교에서 생태학, 양서·파충류학 등을 강의했다. 다음은 라남용 소장과의 일문일답.

생물학 전공 연구자로서 환경컨설턴트가 된 특별한 계기는?

환경컨설턴트는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관찰한 뒤 이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혹은 기업에서 환경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보호, 관리방안 등의 해결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생물학 중에서도 동물학, 다시 세분하자면 양서·파충류의 행동생태를 전공했다. 생물학을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그 생물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산천, 그 자연에서 뛰어놀며 성장했다. 그러한 자연을 지키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보자는 생각으로 박사과정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됐다. 대학 시절부터 지도교수님 권유로 생태계 조사 연구에 참여해 오다가, 사회적 역할을 찾아 현재의 환경컨설팅 사업영역으로까지 진전시킬 수 있었다.





1 2019년 두웅습지 금개구리 복원-먹이공급
2 2020년 태안군 금개구리 서식현황 조사 중

19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올 4월에는 그 영향평가의 진위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 조사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건 불과 십수 년 전의 일이다. 4대강 유역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조사가 진행됐을 정도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 조사는 늘 자연의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결과물로 도출될 수도 있다. 좁은 범위의 사업지구를 개발할 땐 생태계에 적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사례가 많아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조사업무의 책임성이 늘 강조되는 이유다. 이제부터라도 환경과 인간과의 필수적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은 물론 생태계 조사와 평가영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물학자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생물에 대한 이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고 있는데....

공룡이 긴 시간에 걸쳐 지구상에서 사라졌듯이, 한 종이 멸종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한 세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지구상에서 어렵지 않게 겪는 일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에 충북 음성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텃새(황새)가 사냥꾼에 의해 야생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 북미에서도 하늘을 온통 뒤덮던 여행비둘기가 무분별한 사냥으로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시내티동물원에서 한 마리만 생존하다가 멸종된 사례로 기록됐다. 생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만이 지구를 살리는 자원이자 원천이라고 줄곧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은 빠르게 생태계에서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2020년 여름에는 4년간 이끌었던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금개구리 복원사업이 성공했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는 람사르 배후습지의 핵심종이자 지표종이다. 이 금개구리는 2009년까지 두웅습지와 습지 인근에서 흔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다가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라나에코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요청을 받아 2017년부터 복원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그 후에 태안 개체군과 인근 당진과 서산 등에서 금개구리 130마리를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두웅습지에 방사하였다. 이후 2020년에 조사한 결과 3,5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에서 사라졌던 금개구리가 스스로 번식하고, 자립하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복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준비단계에서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원은 실패한다. 두웅습지의 경우, 짧게라도 1년 동안의 사전 '준비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짧은 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항목들은 긴 준비단계를 거쳐야한다. 멸종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정책적인 지원, 인원, 예산, 멸종위협요인 파악과 제거, 나아가 지역의 협력까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겪는 시행착오, 그 실패보고서까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환경컨설턴트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필요한 능력을 꼽는다면?

첫째, 전공에 대한 확신과 철학이다. 환경컨설턴트로서 가치를 추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사명감이다. 기업은 영리추구가 기본이지만,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결과지 앞에서는, 결단코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사회성이다. 처음 대면하는 사람과도 친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대인 관계능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다. 다섯 번째는 체력. 야외에서 조사하고, 때로는 야간에도 일해야 하며, 비를 맞기도 하고, 습지에 빠질 때도 있다. 환경컨설턴트에게 체력은 필수조건이다. 여섯 번째는 경험치만큼 쌓이게 되는, 관찰력이다.

환경컨설턴트의 직업인으로서의 미래 전망은?

공공분야에서든, 기업에서든 환경컨설팅 업무의 수요는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그 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다. 다만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 및 환경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현재로서는 석·박사과정 이상의 학위와 관련 분야 자격증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행복은 직업만족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가치 있는 일, 좀 더 나아가 인류와 모두를 위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일을 추천한다. 젊음은 곧 자산이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경력과 경험을 쌓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TIP BOX 관련자격증 및 학과

- **관련자격증**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관련학과**

자연과학대학(생물학과, 생명과학부),
산림과학대학(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응용생물학 전공) 등

필必환경 시대, '그린 스쿨'을 찾아서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다짐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인의 시계가 빨라지는 만큼, 환경 관련 직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다양한 환경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관과 체험처를 소개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

"학교 안팎에서 다채로운 환경학습을"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해 2013년 설립된 기관으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환경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한편, 환경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주로 지원한다.

우선, 유아 대상으로 전국 3개 권역(수도권, 충남권, 충북권)에 유아 전용 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운영 중이다. 각 교육관은 특색을 살린 실내·외 체험형 시설을 갖추고 누리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교와 기관을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연간 약 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일기 쓰기 및 방학 프로젝트도 주목할만하다. '환경일기 쓰기'는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환경일기장을 활용한 환경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녹색 실천에 참여해 보며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제공해 다양한 환경체험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또는 학급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교육 교구 대여, 우수환경도서 선정, 환경전문가 강사단 운영, 커뮤니티 공간과 장비 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2


3

1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운영
2 푸름이 이동환경 교실
3 유아 전용 환경교육 체험학습장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환경보전협회)
- **이용 문의** 환경교육 지원사업(학교 분야) 02-3407-1576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02-3407-1521, 1522
- **신청방법**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

국립생태원

"기후대별 생태계 모두 체험해요!"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 생태연구 인력을 보유한 생태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해 열대·사막·지중해·온대·극지 기후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전시 공간인 '에코리움'과 각종 생태 체험교육이 진행되는 야외 생태 공간이 조성돼 있다.

특히, 에코리움에는 현지·문헌조사를 거쳐 선정된 식물 1,400여 종, 동물 260여 종이 2만 1천여 ㎡가 넘는 공간에 전시되어 있으며 기후대별 생태계를 최대한 현지 환경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 그 밖에 생태계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상설주제전시관과 다양한 주제 전시가 열리는 기획전시실, 생태교육이 이뤄지는 에코랩을 비롯해 어린이 생태글방, 4D 영상관 등이 있다.

학생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생태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일일생태체험', 자유학기와 연계한 '생태진로체험', 생태진로 탐색 교육인 '생태진로캠프'가 대표적이다. 학급 또는 청소년 단체 단위로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비대면 실시간으로 생태 이야기 프로그램과 진로멘토링도 운영한다. 국립생태원 전문 연구원과 함께 생태연구 분야 진로를 알아보는 진로멘토링은 초~고등학교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단위 생태체험교육 '가족캠프', 생태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교육 '생태과학교실', 국립생태원 생태전시 체험 '에코리움 배움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성인·전문가를 위한 공직자 연수, 교원연수, 민간인력 양성과정,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 **이용 문의** 041-950-5300
- **신청방법** 국립생태원 누리집 (www.nie.re.kr) 예약시스템

1 생태진로체험_ 곤충 연구 및 직업 관련 진로체험
2 일일생태체험_생태계(먹이그물) 주제 놀이체험
3 에코리움 배움터_ 탄소중립 및 식물의 가치 주제 체험


1


2


3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안에 자리한 기념관

허균·허난설헌 남매의 고향

강릉 초당마을

강릉 경포대에 오르면 둥근 거울 같은 경포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눈으로 경포호 둘레를 훑다가 남쪽 솔숲이 우거진 곳에서 멈춘다. 이곳이 허균·허난설헌 남매가 살았던 초당마을이다. 500여 년 전 초당마을 솔숲에서 어린 허난설헌과 허균이 함께 뛰놀던 모습을 상상하며 경포호 호숫길을 걸어 초당마을로 향한다.

글·사진 _ 김혜영 여행작가

허균·허난설헌 남매가 예술적 재능을 키운 초당마을

초당마을은 경포호 남쪽 호숫가에 자리했다. 조선 중기 문신 초당 허엽(1517~1580)이 들어와 살면서 초당마을이라 불렸다. 허엽은 우리나라 최초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1569~1618)과 천재 시인 허난설헌(1563~1589)의 아버지였다. 셋째 딸 허난설헌과 넷째 아들 허균은 초당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허엽 가족이 살았던 강릉 초당동 고택(강원도 문화재자료)은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이다. 솟을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행랑채와 사랑채, 'ㅁ'자형의 안채가 차례로 보인다.





1 강릉 선교장의 행랑채
2 경포호 둘레로 초당 솔숲 산책로가 이어진다.

안채에 허균과 허난설헌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영정 속 허난설헌은 그녀의 호처럼 난초의 청초함과 눈의 깨끗함을 지녔다.

허난설헌은 어려서부터 문학적 천재성을 드러내 허엽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여자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던 당시, 허엽은 딸에게 '허초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들과 차별 없이 학문을 가르쳤다. 자유로운 가풍 속에서 자란 허난설헌이 보수적인 안동 김씨 집안 자제와 혼인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어린 아들과 딸을 전염병으로 잃고, 배 속의 아이까지 유산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달래기 위해 시 창작에 매달렸으나, 결국 27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허균이 누이의 재능이 아까워 유작을 모아 1608년에 '난설헌집'을 간행하여 그녀의 시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았다.

허 씨 남매의 비극적 생애와 문학 작품은 생가터 맞은편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서 볼 수 있다. 남매가 시대를 잘못 만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 삶이 애잔하다.

아름다운 초당 솔숲과 강릉 바다를 품은 초당두부

초당마을을 둘러싼 솔숲은 세찬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운치 있다. 80~100년 이상 된 소나무 3천여 그루와 은행나무, 감나무, 왕벚나무, 모과나무, 회화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다.

허 씨 남매가 살았던 고택 주변 솔숲은 2010년 민간환경단체인 생명의 숲과 유한킴벌리,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숲 어울림상'과 '아름다운 숲 누리상'을 수상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이곳에서 허난설헌 문화제와 허균 문화제를 개최하여 두 문인을 기리고 있다. 아침 또는 늦은 오후 무렵 소나무 사이로 비껴드는 은은한 햇살을 느끼며 산책로를 걷다 보면, 허씨 일가의 개인 도서관이었다는 '호서장서각터'도 만난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주소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93번길 1-29
문의 033-640-4798
관람 시간(초당동 고택, 기념관, 전통차 체험관)
09:00~18:00 월요일 휴무

사실 초당마을은 초당두부가 가장 유명하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아래 초당두부 요리 전문점 열아홉 채가 성업 중이다. 대부분 이곳 토박이들이 대를 이어 두부를 만든다. 초당두부를 처음 만든 이가 허엽이다. 허엽이 천일염 간수 대신 바닷물을 넣어 몽글몽글한 두부를 만들었는데,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허엽이 이 두부를 '초당두부'라 불렀고, 만드는 비법이 초당마을에 전해진 것이다.

초당두부마을에서는 매일 새벽 2~4시부터 콩을 갈고 가마솥에 삶아, 전통 방식대로 초당두부를 만든다. 아침 7시쯤이면 두부가 완성된다. 갓 만든 두부가 가장 맛이 좋다.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초당마을부터 들르는 이유이다.

경포호 호숫가의 옛 정취, 경포대와 선교장

초당마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강릉 경포대(보물)는 경포호 서쪽 언덕에 세워졌다. 1326년(고려 충숙왕 13년)에 방해정 뒷산 인월사 옛터에 세운 것을 1508년(조선 중종 3년)에 지금의 지리로 옮겨왔다. 경포호 둘레에 있는 13개 누각과 정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기둥이 48개나 된다.

경포대 내부에는 숙종이 직접 지은 '어제시'와 율곡 이이가 10세에 지었다는 '경포대부'를 비롯해 문장가 조하망의 상량문 등 수많은 명사와 시인 묵객의 글이 게시돼 있다. 난간 아래 높은 마루턱에 걸터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경포호를 바라보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강릉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은 17세기 초,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지은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이다. 배를 타고 경포호를 건너다녔다고 하여 '선교장'이라 불렸다. 강릉에서 한양까지 가는 동안 선교장 땅만 밟고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재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현재 국가 지정 명품 고택으로 지정되었으며 한옥 체험, 배다리 만들기, 다식 만들기 등의 전통 체험을 진행한다. 선교장 내에 박물관과 한옥 카페와 전통음식 전문식당 등이 있다. 선교장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솔숲 둘레길 또한 명품 숲길이다.

3 초당마을의 두부 요리 전문점에서 허엽이 개발한 초당두부의 전통을 잇고 있다.
4 허균·허난설헌기념관 내부 모습





혼자보기 아까워서



장미정 강원 동점초등학교 교무행정사



수상한 도시

강원도 태백의 가장 작은 학교 동점초등학교. 하나뿐인 복식학급에서 5~6학년 어린이 3명이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5월의 어느 즐거운 미술 시간, "우리 오늘은 뭘 그려볼까?"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시 풍경'을 외쳤습니다. 코로나19로 못 가본 도시를 동경한 탓인지 아이들은 재잘재잘 떠들며 신나게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공판화 기법을 배워 제각각 좋아하는 색으로 찍어가며 도시 풍경을 완성한 아이들은 뭔가 수상해 보인다며 다들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작품명도 '수상한 도시'라고 지었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직접 표구한 후 교실 복도에 걸어주셨어요. 동점초등학교 복도 벽에 걸린 '수상한 도시'가 우리들의 추억과 함께 밝게 빛나고 있답니다.

이정석 부산보건고등학교 교사



나라 사랑 독도 디저트

부산보건고등학교에서는 독도교육과 함께 예쁜 디저트를 만들었다.

강현 학부모



사이버독도학교를 아시나요?

지난해 4월 26일 개교한 경북 사이버독도학교. 학교 문을 연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올해는 전국화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이버독도학교를 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사이버독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의 사진 한 컷을 보냅니다~

양만주 경남 동양초등학교 교사



독도 앱 만들기 | 독도의 날 캠페인 | 독도지킴이 동아리 협동문구 만들기 | 독도탐방 교사 동아리

다들 모여라! 독도 플래시몹 캠페인

독도지킴이 학교인 경북 봉화 동양초등학교의 독도 사랑. 아이들이 다양한 행사로 즐겁게 독도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교육활동 중 완성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혼자 보기 아까운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작품 완성도가 높아서, 혹은 재치 있어서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작시, 그림 작품, 수행평가 결과물, 건축물, 스승의 날 아이들의 편지글, 학교 운동회 사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만화 컷과 웹툰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작품과 함께 작품에 담긴 짤막한 사연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eduzine21@gmail.com

FOCUS 01

"섬세하면서도 최선의 수업 만드는 교사 되고파"

+ 교직관 (내의 교직관은?)

글 _ 성완 명예기자

지난 5월부터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한창이다. 4주간 창녕여자중학교로 교육실습을 다녀온 경남대학교 배수빈(국어교육과 3학년) 학생을 만났다.

Q1 교육실습을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던데.

이번에 교육실습을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모교 중학교에 교육실습을 신청했는데, 마침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셨고 같은 국어 교과이기에 선생님께서 교과 실습, 담임 실습을 모두 맡아주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고3 시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선생님은 사제지간 정이 깊어 이렇게 인연이 닿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저도 선생님과의 깊은 인연에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Q2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첫 번째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참관 기록지에 수업을 참관하면서 배운 점, 느낀 점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실습수업을 했는데, 국어수업 지도안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학급경영으로 담당 학급에 들어가서 조·종례를 지도하여 출석 확인, 자가진단 제출, 안내사항 전달 등 담임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우리 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4주간 교육실습 지도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알찬 경험을 채웠습니다.

Q3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수업을 짜는 일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1학년 국어수업을 맡았는데, 자유학년제로 운영되어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처음 실습수업 전 지도안을 짰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수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첫 수업 전날 계획을 급하게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아낌없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무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Q4 교육실습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학습에 필요한 도구들이 학교에 비치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개인 노트북을 배급하여 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졌더라고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교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며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교생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는 모습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Q5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가요?

+ 면접

저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두 가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요. '인간으로서' 학생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학생의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세심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고, 그 몰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내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업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최선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Q6 교육실습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주었는데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교육실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오래오래 간직될 것 같습니다.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정연희 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폐교의 쓰임을 생각하게 된다. [특별기획]에서 다룬 폐교의 활용에 관한 기사는 흥미진진했다. 학생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문을 열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쓰임 있는 곳으로 재탄생 되니 보는 내내 뿌듯했다. 농촌살이 청년들의 보금자리도 되고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도 되니 그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폐교를 캠프장으로 재탄생시켜 힐링 공간으로 활용한다니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지역의 캠프장을 다니며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폐교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쓰임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다시금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학교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재범 님

[교실혁명] '메타버스로 만나는 우리들의 교실'을 관심 있게 보았다. 최근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매스컴에서 자주 언급되고는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비대면 원격 교육이 시도됐지만 분명 한계도 존재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앞으로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에 유용한 플랫폼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교육 현장의 많은 선생님 그리고 교육 콘텐츠 관련 사업자,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이 잘 연착륙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오승희 님

[특별기획] '통합학급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읽고 선생님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한 아이와 3년간 함께한 통합학급에서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발달장애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 학생들이 있다. 또한 특수반 학생이 아닌 일반 학급의 학생 중에도 발달장애 학생이 눈에 띄게 많음을 보고 아이들 지도가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자가 학급 아이들이 자폐아를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길러주는 교육을 통해 '배려, 다름, 존중, 관계, 공감' 등의 가치를 심어주었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함께 해 나가야 할 때이다.

EVENT

힌트 P 34(정책을 말하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사대생 등 ○○○ ○○○」 사업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습 보충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